

국회 방문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 섬진강 수질보전 '탄력'

황인홍 무주군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 등 반영 요청

2024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황인홍 무주군수가 7일 오전 국회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계속)과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업 3단계(신규), △덕유산 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신규),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신규) 추진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이원택 국회의원(예산결산위원)과 조수진 국회의원(예산결산위원), 서삼석 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을 차례로 만나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시급성, 추진 상황 및 계획 등을 설명하고 사업별 필요 국비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황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사업(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 기관 / 2023~2027, 총사업비 480억 원, 시행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10억 원을 2024년 국비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는 대통령 직속 공약사업으로, 올림픽 정식 종목 유지 등 태권도 위상 강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지원 요청에 무게를 실었다.

또 '무주군 폐기물매립시설 확장사



2024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황인홍 무주군수가 7일 오전 국회를 방문했다.

업 3단계(2024~2026, 총사업비 43억여 원, 시행기관 무주군)은 현재 사용 중인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2단계 시설 이용의 조기 종료 우려에 따라 3단계 매립시설을 확장하기 위한 것으로, 황 군수는 이 자리에서는 2024년도 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 2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병목구간의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는 등 교통의 흐름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덕유산 IC 병목지점 회전교차로 설치사업(2024~2025, 총사업비 20억 원, 시행기관 국토교통부)'과 관련해서는 국비 10억 원 반영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성면 예술인마을 및 궁대마을 하

수관로 정비사업(2024~2026, 총사업비 26억 원, 시행기관 무주군)은 공공수역(용담댐 상류) 수질보전과 지역사회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위해 꼭 추진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 국비 3억 원 반영을 요청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사업들은 국가경쟁력 확보와 지역사회 발전, 그리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정부 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답답한 심경"이라며 "무주군에서는 해당 사업들이 든든한 추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비롯한 정치권을 찾아 긴밀히 협조해 나가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기자

최훈식 장수군수,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 등 반영 요청

최훈식 장수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품팔정에 나섰다.

최훈식 군수는 지난 2일과 7일 내년 예산 심사에 본격 돌입한 국회를 연이어 방문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 회 위원장,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안호영 의원, 이원택 의원, 김수홍 의원, 강홍식 의원, 양경숙 의원, 정운천 의원, 이용호 의원을 만나 군이 국회 단계에서 중점 관리하고 있는 사업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안 반영을 요청했다.

군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고자 하는 중점사업은 부처 단계에서 사업필요성은 인정받았으나 기재부 심의를 넘지 못한 △동서화합 육십령 가야이음터 조성사업(196억원) △양악마을 하수관로 정비사업(36억원)이다.

이날 최 군수는 의원들에게 사업 타당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회 단계에서 정부예산안 반영을 적극 건의했으며, 또한 현재 장수군에서 추진 중인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원



최훈식 장수군수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과 협조를 구했다.

군이 요청한 주요 현안 건의사업은 △장계면 도시재생 공모사업(230억원) △국도13호선(장수~천천) 도로시설 개량사업(757억원)으로 지역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장수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최훈식 군수는 "2024년 국가예산이 최종 결정되는 날까지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국회 상주반을 구성하고 수시로 국회를 방문할 계획"이라며 "여야 국회의원 및 부처 관계자들을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 예산확보 활동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북도 및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전 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펼칠 방침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좌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신규사업 선정

진안군은 2024년도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국비 9억7천만원 예산을 확보하며 성수면 좌산리에 하수관로 설치로 섬진강 상류 수질보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16억2000만원(국비 9억7천, 지방비 6억5천)을 투입해 하수관로 신설 1=1.4km, 처리장 증설 20m³/일 등을 추진하게 된다. 이에 성수면 좌산리 평지마을과 상촌마을 2개 마을 주민 100여명이 하수처리구역 확대의 수혜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2023년 국가예산 신규사업으로 신청했으나 미 반영된 이후 진안군 수질보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전춘성 군수를 비롯한 담당 직원들이 올해 초부터 전라북도 환경부, 기재부 등을 방문해 하수도 설치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설득

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는 결과를 얻어 더욱 큰 의미가 있다.

이 밖에도 진안군은 2024년도에 하수도 분야 주요 사업으로 하수처리장 확충(1건) 11억, 하수관로 정비(5건) 51억, 마을하수도 설치(6건) 20억,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3건) 92억, 진안군 자체사업비 36억 등과 국비 50억원 등의 보조사업비를 포함 총 2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맑은 물 보전과 공급, 주민 주거환경 개선, 용담호(금강) 및 섬진강 수질보전 향상을 위한 노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에도 군민은 물론 인근 지역까지의 청정환경을 생각해 노력한 결과 얻은 성과"라며 "지속적으로 섬진강과 용담호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시설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스마트강소농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진안군이 농촌진흥청 주관 스마트강소농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 활용 스마트강소농 교육 운영사례, 농가현장 적용 우수사례 발굴 2가지 분야에서 진행됐으며, 농가현장 적용 분야에서 진안군 안천면 연은정(진안 딸기향) 대표가 우수농가로 선정됐다.

'진안 딸기향'은 데이터 축적을 위한 시설(무인방제기, 열선 등)을 구축

해 난방비와 노동력을 절감했다. 또한 경영기록 어플을 활용해 영농일지, 수입지출기록, 판매상품 등록 등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영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한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연 대표는 유통구조 다변화를 위해 농가 콘텐츠를 개발하고, 초등교과 과정과 연계한 교육농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중간점검

장수군은 지난 6일 도로 마스터플랜 수립 및 도로 사업 정책성 평가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장수군이 필요로 하는 8개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등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착수한 용역의 결과에 대해 중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정책성, 타당성 등을 확보하고 설명하는 등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군 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중간 점검의 시간을 가졌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2026년~2030년 추진될 5개년 도로건설계획으로 국토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한 후 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해 최종

후보사업 중 기재부에 일괄 예타를 요청,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장수군은 20년 숙원사업인 장수(선창리)~천천(천천삼거리)간 국도 개량 사업을 최우선순위로 요청했다. 해당 노선은 지방도에서 국도로 승격된 노선이나 국도 시설기준에 미흡해 최근 9년간 교통사고 92건이 발생(사망 8명)하는 등 주민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도로구조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군에서 매년 국가계획에 반영을 요구했음에도 비용대비 편익(B/C) 미달로 번번이 미반영됐다. 이에 장수군은 동부산업권에 위치한 열악한 교통환경을 적극 강조, 교통성, 안전성, 연계성 등 타당성 논리를 충분히 발붙이기 위해 힘쓰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 상황bericht 우수농·특산물 선정

진안 농특산물이 국내 최대 규모의 농산물 전시판매행사인 제32회 전국 으뜸농산물만남마당에서 우수성을 재확인했다.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이 후원한 대회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 수원시 농협하나로마트 수원점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7개 시도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출품한 360여개의 농산물을 부문별(곡류, 과일류, 채소류, 특작류 등)로 분류해 현장에서 외부평가위원이 품질 평가 후 우수농특산물을 선정했다.

이 중 한농연 전용진 사무국장 이 출품한 상황bericht이 특작류 부문에서 농협중앙회장상을 수상했다.

황인준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진안군연합회장은 "이번 수상으로 진안 상황bericht이 전국에서 최고 으뜸 농산물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고, 앞으로도 상황bericht 이외에도 진안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전시판매 해 도시 소비자들에게 많은 홍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대표상징물(CI)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장수군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수군 대표상징물(CI) 아이디어' 공모전에 최종 4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대외적인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지역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자 장수군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상징물을 재개발하기 위해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전을 개최했다.

공모전에는 총 32명이 참여, 55건의 작품이 접수됐다.

군은 장수군 대표상징물 심의위원회의 2차에 걸친 심사와 대중 투표 등을 거쳐 대상 1점, 우수상 1점, 장려상 2점 등 최종 수상작 4작품을 선정했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장수군 대표상징물 공모전에 참가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수군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